

<HEREN> CLASSIC SERIES 1

# HEREN

아트

## COLLECTOR'S WORLD

한국 최고의 갤러리들이 꼽은 젊은 아티스트 17인  
세계적인 아트 페어 하반기 스케줄

# JENNY HOLZER

## 빛으로 시를 쓰다

시인이 될 수 없다면 시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40대에 이미  
가장의 번영에 올랐지만, 혁신과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초로의 예술가가  
말한다. 예술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나이 들 수  
있다면 더없이 근사하리라. editor 오유리 photographer 이흥우



넓어진 시선과 모거본 용어보다  
30만 엑스프 이하의 구멍지  
제니올지, 전복 직물만  
국제 결사에서 열리는 전시를  
통해 신비한 LED 조명 연출  
New Corner (2016)



제니 홀저(Jenny Holzer)가 세계 미술계에 알려진 것은 한번 보면 도무지 잊을 수 없는 LED 조각 때문일 것이다. 영혼을 유혹하듯 힘줄하게 반복하는 전광판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경주를 발견했을 때의 감흥이런 가장 현대적이고 기계적인 테크놀로지 앞에서 가슴이 간질간질해지는 이상로그적 감상을 느낀다는 사실에 미술 애호가들은 물론 공학자와 철학자들도 감탄해 마지않았다. 세계 각국의 공공장소와 랜드마크는 물론 유수의 미술관들과 기업의 로비마다 그녀의 숨겨진 보물창 작품이 천장과 벽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텍스트 아티스트에 기반한 개념미술의 창시자인 그녀는 언어를 기반으로 포스터와 브로셔 명문, LED와 대각적 조각, 라이트 프로젝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작품을 전개해왔다. 게다가 40대 초반이던 1960년,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여성으로서의 처음이었다)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으니 젊은 나이에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성 작가로 기록 될 것이다. 그러나 먼 처음, 그녀는 길거리 예술가였다.

오하이오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뉴욕으로 온 그녀가 처음 한 작업은 문화계 일과 활동이었다. 가정예대를 비판하는 도발적인 문장을 스스로 써서 프린트해 뉴욕 도심 곳곳에 붙여 붙이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우연히 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물론, 접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다음 날 포스터를 붙였던 곳에 다시 가서 그대로 있는지, 사람들이 재밌는 낙서를 해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곤 했어요." 그렇게 거리와 싸구려 티셔츠를 거쳐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상업적인 벽에도 손을 뻗었다. 1980



년대 초,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PROTECT ME FROM WHAT I WANT" 같은 문장들을 쏟아울린 것.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영혼을 출혈 권한을 부여받은 광고 사이사이에 도발적인 문장들이 유명처럼 출몰한 것이다. 전광판 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매수해 벌인 이 법칙한 사건은 광고와 예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곧 미술계 인사들을 때리시었고, 구경하임 미술관과 DIA 아트센터 등이 작품을 압수해 소장했다.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를 거쳐 단숨에 세계적인 작가로 도약했으나 꽤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긴 생머리를 고수해온 것처럼,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개인 소장가의 화려한 방에 갈해 사적으로 소유되는 대신 공공에 향유되고, 주입시키는 대신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물론, 어린이에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정제된 방식으로!

그때부터 지난 30여 년간 줄곧 그녀는 텍스트라는 일관된 재료를 사용해왔다. 물감과 붓 대신 왜 언어인가? "텍스트란 모든 것이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험과 감정, 지식과 역사 등을 담아내지만 실제로 일어나거나 목제가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요. 한편으로는 언어가 가진 뜻과 발화할 때의 소리, 미세한 뉘앙스까지 모든 요소들이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중성이야말로 제가 언어를 주요한 재료로 사용하는 이유죠."

1996년 이후, 제니 홀저는 LED 조각 작업에 이어 라이트 프로젝션 작업을 시작했다. 공공건물이나 지하철도, 런던 시청과 베를린의 내셔널 갤러리 같은 건축물, 뉴욕시교의 사파와 샌다에이그의 바다 같은 자연 등을 캔버스라 텍스트를 쓰어



올리는 작업이다. "프로젝션 앞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느껴지고, 고요해지면서 명화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좋습니다. 공통체적인 느낌이랄까요, 아주 조용히 텍스트가 건물을 감싸 안는 듯한 느낌도 들지요."

뉴욕시코에서는 오래가 움직이면서 글씨를 신으로 옮기고, 한편에서는 안개가 감히면서 무지개처럼 글씨가 나타나는 경이로운 신도 창조했으니, 관람자들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환호가 터져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야말로 채니 출재의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글쓰기를 멈춘 2001년 이후, 순전히 작가의 통찰로 선택되는 쉽고도 간명한 텍스트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냉담하고, 끊임없이 의심의 대상이다. 목걸이 센터의 팀옥스런 피사드에 할레스타인 사인의 노래를 새기는가 하면, 16세기 이후 왕족과 귀족들이 사용했던 향연의 서어릿 하우스의 커다란 기둥에는 이스라엘 시인 예후다 아이차이의 시구 '이제 나는 평생에 걸쳐 살아온 모든 지식을 포기한다'를 뿌려놓는 식이다. 피연체의 달빛 가득한 아무노 감에 'SMELL YOU ON MY SKIN'이라는 열광적인 시구를 띄워놓는 채치만 한편, 채니 출재의 텍스트에는 전쟁과 테러, 고문과 양명, 여성 학대와 사상으로 인한 도피 등 불편한 주제들이 자주 등장한다. "정치적이라는 말을 듣지만 반드시 사회비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실적인 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어떤 의견을 주입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관람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부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 1 서울 전세를 통해 서울 공개된 'New TW(2011) LED 조각은 채니 출재의 참여와 속도 등의 변화의 다양한 설치 방식을 통해 건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2 세계 각국에서 열린 다양한 라이브 프로젝션을 기록한 10여 점의 사진 작품과 대략적으로 만든 텍스트, 신작 LED 조각 등이 설치되었던 국제 갤러리 신관.
- 3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라이브 프로젝트 'Xenon for Paris(2001/2008).
- 4 이스탄불 대외 문화의 마지막 작품인 내셔널 갤러리(베를린)에서 열린 라이브 프로젝트 'Hands On'을 기록한 피그먼트 프린트, 세련되고 정제된 그의 작품은 강력한 건축물과 조우할 때 더욱 아름답다.
- 5 1990년부터 이어온 벤치 형태의 'Footstool(2008)', 시간의 변형과 흐름을 견딜 수 있는 물체에 텍스트를 실기 위해 시작한 대략적 작업으로 전시 기간 동안 위치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지난 30여 년간 줄곧 그랬듯이, 채니 출재의 작업은 시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LED 조각은 흥미로운 표현과 설치 방식을 통해 건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건축과 대지를 캔버스 삼아온 라이브 프로젝트는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현대 문명이 창조해낸 가장 현대적이고 상업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그녀의 작품이 한없이 따뜻하고 시적인 무드로 모두를 사색으로 끌고 간다는 점이다. 그에게도 아직 못다 한 이야기,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오면서 깨달은 한 분명한 것이 있다면 예술은 예술가만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술이 가져야 할 덕목은 있습니다. 예술이란 무모할지언정 누군가를 해치거나 양치지 않고,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예술은 다름 아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못건디게 궁금합니다."

낮은 캔버스화에 후드 티셔츠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작가가 구루처럼 웃음지었다. 만약, 시는 일이 좀 심드렁하게 느껴진다면 채니 출재의 작품 앞에 출연이 서를 것을 권한다. 그가 빛으로 쓴 시는 아주 간명하고도 묵직한 방식으로 의식을 깨운다. '자유는 사치이지 필수가 아니다' '누군가의 욕제는 당신의 정신을 위한 인식채다' '관객의 눈물이 흘러온 일은 아니다'... 오래된 농담 같기도 하고, 속깊은 조언 같기도 한 그녀의 텍스트를 훑어보다 보면 불현듯, 실을 아름답게 만드는 몇 가지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녀의 오랜 비평대로, 이 얼마나 시적인가. [HEREN 2014 1088](#)